

#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

안 종 철 \*

##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중등학교 측의 대응 |
| 2.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제국의 의례적 통합 | 4. 학교 폐쇄와 조선인들 내의 분열      |
|                           | 5. 맺음말                    |

\* [미] 선교회에서 금반에 학교의 [조선인들에게] 양도매도를 결정적으로 거절했다는데는 섭섭한 생각을 안가질수가 없다.(조만식, 1937년 10월)

\* 태평양전쟁으로 미국선교사단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경영하던 밋슨스쿨을 한국인에게 인계해주고 가려고 하였으나, 일본당국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폐교되고 말았다.([교당 조만식], 156.)

## 1. 머리말

식민지시기 평양에는 서구선교사가족 수백 명이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주일 선교사 조지 풀턴(George Fulton)은 당시 평양과 선교사 거주지를 둘러보고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했다.<sup>1)</sup> 이는 식민지 시기의 일본제국이 처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구미선교사들이 자국 식민지에서 활동했으므로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논문은 2008년 12월 5-6일간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사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李省展, 2006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42면. 미국의 남북전쟁(1861-65)시 미장로교도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장로교는 1884년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한반도에 보냈는데 당시 최대교파였다.

식민지 경영에서 항상 영미권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sup>2)</sup>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Chosun Mission)는 당시 자파의 최대 선교지 평양에서 학교, 병원, 교회라는 세 축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북지역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 조선 기독교인의 반 수 이상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지역 선교사들은 일제 측의 관리, 타협의 대상이었다.<sup>3)</sup> 아울러 식민지 시기는 공교육의 부실과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한 학교는 교육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sup>4)</sup>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평양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일제는 1931년 이후 중국침략을 단행했는데 이에 비판적인 서구세력은 일제의 일방적인 행동에 걸림돌이었다. 이 시기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 시기까지 선교사들은 일제 측의 새로운 정책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평양지역은 식민지시기에 일제 측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전사체제 기에는 일제의 본격적인 관리대상이 되었다.<sup>5)</sup> 특히 일제는 전시동원을 위해 각급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 문제는 기독교 역사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sup>6)</sup>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종교적 신념체계의 충돌이 다루어졌다. 즉 신사는 일본의 태양신, 아미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를 참배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신앙과 양립 불가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사를 우상숭배로 비판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저항이라는 잣대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 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당시 평양지역의 기독교계 학교를 지속시키고자 했던 일군의 집단에 대해 배교, 혹은 친일이라는 암묵적인 판단이 있어왔다.<sup>7)</sup>

2) 1910년대 한국인 민족운동인 '105인사건'이나 '3·1운동' 발발 시 일제의 한국인들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나 학살의 실상이 선교사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식민지 시기 기독교인에 통계는 일정하지 않다. 대체로 태평양 전쟁 직전 천주교가 10만 이상, 장로회가 25만 이상, 감리회가 5만 이상으로 도합 46만 정도로 전 국민의 2%내외로 본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260-261면. 노치준은 장로교인만 1941년에 354,913명에 달했다고 본다. 노치준, 1992 『일제하 한국장로교회 총회 통계에 대한 연구』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35집), 문학과 지성사, 68면의 표.

4) 노치준은 1908년에서 1942년 장로회 총회자료를 근거로 식민지 시기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전체중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20, 최대 40%로 보았다. 노치준, 앞의 논문, 84-90면. 1940년 5월 말 당시 외국인학교, 성경학교 등을 제외한 약 90개 정도의 사립 중등교육기관 중 최소 25개 이상이 선교사 혹은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경영하는 학교였다. 손인수, 1971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284-289면의 표들 참조.

5)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시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안종철, 2008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장 참조.

6)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김승태 엮음, 1991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참조.

7)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저항이라는 관점의 연구는 위의 책에 실려 있는 이근삼, 김양선, 한석희 등의 연구를 참조. 이러한 시각은 평양지역 선교사인 윌리엄 블래어(William N. Blair) 등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 온 시각이다. William N. Blair, 1946 *Gold in Korea*,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pp. 93-101. 한국기독교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도 그러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73-338면을 참조.

필자는 이 글에서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철수 문제가 당시 선교사, 조선인, 일본 당국간에 어떠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추적하고자 했다. 이 논문을 통해 중일전쟁 발발 전후로 일제 측이 평양지역 기독교계 학교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었고 일제가 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한편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에서의 철수는 미일간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sup>8)</sup> 아울러 이 문제는 해방 후 서북지역의 기독교계 지도력과 정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 2.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 - 제국의 의례적 통합

일본은 민주침략(1931) 이후 국제사회의 항의에 직면하자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서구사회는 일제의 민주침략을 비난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제는 중국에서의 공세를 강화해나갔다. 특히 군부는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갔는데 그 기초에 천황제가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사, 즉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었다. 신사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본적 전통이었으므로 일제는 영미선교사들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려고 했다. 특히 일본은 1934년 6월 문부성 내에 사상국을 설치해서 종교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 무렵 일본 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논쟁은 일본의 지성계를 군국주의에 복속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35년 2월 28일 일본 귀족원 본회의에서 남작 키쿠찌 다케오(菊池武夫)는 같은 의원이었던 헌법학자 미노베 다스키치(美濃部達吉)가 일본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천황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치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천황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며 강력히 비난했다.<sup>9)</sup> 이후 학계는 ‘천황주권설론자들’이 주도하면서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이 학내에 가미타나(神棚)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도시샤 가미타나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의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일층 강화되었다. 게다가 1936년 2월 26일에 일어난 군부 하급 장교들의 쿠데타(2·26사태)는 이후 군부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일본은 급속히 군국주의화되었다.<sup>10)</sup>

8)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종철, 2009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한국사연구』 제145호, 한국사연구회 참조.

9) 천황기관설 사건은 김창록, 1994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24-131면.

10) Marius B. Jansen, 2000 *The Making of Modern Japa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97-599.

천황제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위기는 당연히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우선 1933~1935년간 식민지 대만에서 기독교계 사립 중등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영국과 캐나다 기독교계 학교(台南長老教中學校, 淡水中學淡水女學院)가 주된 목표물이었다.<sup>11)</sup> 재향군인회가 외곽에서 대만 총독부를 압박했고 총독부는 재향군인회의 압박을 받아들여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논란 끝에 영연방 기독교계 학교들은 당국의 입장에 굴복했다.<sup>12)</sup>

한편 1935년은 '조선병합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는 직전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sup>13)</sup> 당시 우키키 가즈시게(宇垣一成)총독은 만주-조선-일본을 연결하는 제국의 결합력을 높일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조선통치에서 앞으로 주력할 사업으로 1) 공업발전, 2) 농가개생계획의 확충, 3) 심전(心田)개발을 설정하였다.<sup>14)</sup> 특히 '심전개발'의 목적은 종교계와 총독부의 전면적 협력을 목표로 천황제를 중심으로 개별 종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35년 초두부터 도지사회, 중추원회의, 각 지역 경무과장 등과 총독이 가진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sup>15)</sup>

1935년 9월 22일에 총독부는 각 도지사에게 모든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당국의 일원적 통제가 시작되었다.<sup>16)</sup> 미 북장로교는 조선에서 8개의 중등학교와 3개의 고등교육기관을 운영 혹은 지원하였는데 중등학교는 1935년경까지 한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인가받으면서 총독부의 교육체제에 편입되었다.<sup>17)</sup> 아래 표 1은 북장로교 선교부 소

이 사건으로 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도 암살되었다. 이는 군부 내 '은건파'의 종말을 상징한다.

- 11) 식민지 이전인 1850년대에 스페인의 도미니칸(Dominicans) 선교사들이 대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1860년대에는 영국장로교가 타이난(台南)에, 1870년대에는 캐나다 장로교가 타이페이(台北)지역에서 사립 중등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기독교계 학교의 활동은 조선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E. Patricia Tsurumi, 1977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4-36.
- 12) 이에 대해서는 駒込 武, 2002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7』, 東京: 岩波書店 참조. 고마고메 다케시(駒込 武)의 연구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신사참배 강요가 전체적인 제국통제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 13) 한궁회, 1996 「1935-37년 日帝의 '心田開發'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41-143면.
- 14) 『宇垣一成日記』 1935년 5월 15일, 10월 1일자(앞의 논문 144쪽에서 재인용).
- 15) 각종회의에서는 조선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위기와 각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었다.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1월 11일, 4월 19일),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編纂, 1941 『諭告・訓示・演說總覽』, 朝鮮行政學會, 124-137면.
- 16) Langdon to Edwin L. Neville (주일 미 대사 대리),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0월 10일(395.1163/21), 2003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제 35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 pp. 100-101; "Obeisance of School Pupils at Jinja", Seoul Press, 1935년 11월 29일.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0일(395.1163/21)에 첨부. 『신사참배자료 I』, pp. 113-114.
- 17) '고등보통학교'는 정부가 정한 모든 교과과정을 따라야 했고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

속 각 학교의 지정학교화를 보여준다.

표 1 북장로교 소속 중등학교의 지정학교화

중등학교 명(지역)	지정학교 당시 교장	지정학교화 연도
경신학교(경기 서울)	E. W. Koons	1923년 5월 (최초)
정신여학교(경기 서울)	Margo L. Lewis	1935년 5월
승실학교(평남 평양)	George S. McCune	1928년 5월
승의여학교(평남 평양)	Olivette Swallen	1931년 12월 18일
신성학교(평북 선천)	장리욱	1931년 3월
보성여학교(평북 선천)	Blanche I. Stevens	1935년 5월
계성학교(경북 대구)	Harold. H. Henderson	1933년 4월 13일
신명여학교(경북 대구)	Harriet E. Pollard	준비

출전: 李省展, 2006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東京: 社會評論社, 7장; 김승태·박혜진, 1994 『내한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등.

1935년 7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이하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그 해 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선교부 연례회의는 참배반대라는 강경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조선 선교부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이하 실행위원회]로 하여금 총독부 학무국과 교섭토록 했다.<sup>19)</sup> 실행위원회 구성원 3인, 스탠리 솔타우(T. Stanley Soltau, 蘇陀道, 1890-c.1967)<sup>20)</sup>, 해리 로우즈(Harry A. Rhodes, 盧解理 1875-1965)<sup>21)</sup>, 그리고 대표인 제

다. '지정학교'는 당국의 교과과정을 따르면서도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각종학교' 출신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리했으므로 1922년 '신교육령'공포 후 장로교 선교부와 조선 장로교 측은 관할학교들이 '지정학교'로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대체로 감리교 측은 배재고등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등으로 '고등보통학교'체제를 따랐고 장로교 측은 '지정학교'를 받아들였다. 지정학교 승격의 사례는 권영배, 2004 『日帝下 私立各鐘學校의 指定學校 昇格에 관한 一研究』 『朝鮮史研究』 제13집, 조선사연구회. 대학은 연희전문(1917), 세브란스의전(1917), 숭실전문(1925) 순으로 당국으로부터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8)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RG 140-12-14), 2004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제36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I』), pp. 13-14. McAfee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승실학교와 전문학교 교장인 맥쿤의 처남이었다.

19) 강경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총독부와의 타협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Ibid.

20) 솔타우는 1914년 내한하여 만주,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청주에서 18년 동안 활동했다.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다가 193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선선교부가 열리기 직전,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면담한 후 그들이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신사의례의 종교성을 강조했다. T. S. Soltau to McAfee, 1935년 6월 6일, 『신사참배자료 II』, pp.

임스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許大展: 1878-1972)<sup>22)</sup>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한 인물들이었다.<sup>23)</sup> 실행위원회는 선교부 내 다수파의 의견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1935년의 선교부 연례회의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후에는 경찰의 참여 하에 회의가 열렸다. 실행위원회는 선교부로부터 당국과 교섭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전권위원회’로 기능했다.<sup>24)</sup>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학교들이 일본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의 “주된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sup>25)</sup>

홀드크로프트는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가 보기에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4가지였다. 첫째, 조선의 교회가 “50년 넘게 조상숭배를 금지해온 점”, 둘째, 일본 당국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일본인들이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라는 것, 넷째, 신사참배반대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sup>26)</sup>

홀드크로프트는 해외선교부가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조선 장로교 총회 내에서도 7인 위원회를 구성, 선교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sup>27)</sup>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가 미 국무부와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sup>28)</sup> 그러나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sup>29)</sup>

10-12.

- 21) 로우즈는 1908년 내한 후 주로 강계에서 활동했다. 1918-33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성서와 영어 등을 강의하면서 장로교 역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Harry A. Rhodes, 1965,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 Vol II. 1935-1959,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65.
- 22) 홀드크로프트는 미주리주 파크대학(Park College)을 졸업한 후 1903년에 내한, 평양지역에서 활동했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1926년부터 미 북장로교 조선 선교부 회장과 총무 등을 역임했고 1936년에는 회장으로 일하면서 블레이어(William N. Blair), 솔타우, 로우즈 등과 강경입장을 주도했다. 해외선교부의 교육철수문제에 대해 실망해서 1940년 미국 귀국 후 북장로교를 탈퇴, 정통장로회 독립선교단에서 활동했다. 김승태·박혜진 역음, 1994 『내한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03-304면.
- 23) 홀드크로프트는 평양, 솔타우는 청주, 로우즈는 서울에서 활동했지만 주로 이들이 교육사업 보다는 직접 선교사역 혹은 학내의 성경교수 등에 종사했기 때문에 활동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 24) “Statement Concerning Our Attitude toward patriotic Ceremonies, Resolutions Passed by Chosen Mission”, July 1935, 『신사참배자료 II』, p. 32.
- 25) 앞의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
- 26)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p. 4, 『신사참배자료 II』, p. 28.
- 2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1934년 10월 1일, 12월 6일 총회장 이인식 목사 명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시키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려 했다. 총독부는 여러 구실로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록』, 1935년 9월.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1995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 新教出版社, 462면에 수록.
- 28) 홀드크로프트는 동경의 미 대사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의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pp.5-7, 『신사참배자료 II』, pp. 28-30.
- 29) “Minute Adopted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S.A.”, 1935년 11월 18일, 『신사참배자료 II』, pp. 34-35.

이러한 때 평양에서 평양신사가 건립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잘 알려진 대로 1935년 11월 14일 평남도청에서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평남 도지사는 참석한 인사들에게 평양신사에 참가한 후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참석한 16명의 교장 중 3명의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sup>30)</sup> 1935년 4월 평양에 부임해 온 도지사 야스다케 타다오(安武直夫)는 부임 전 대만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그가 대만총독부에 재직할 때 대만에서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sup>31)</sup> 그러므로 기존의 평남도청 측과 평양거주 선교사들의 협력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승의여학교 교장대리 벨마 스누크(Velma L. Snook, 鮮于 槩 1866-1960)<sup>32)</sup>와 함께 참배를 거부한 맥쿤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sup>33)</sup>

평남 도지사는 두 교장에게 금후 참배를 거부한다면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들의 답변 기한을 12월 20일로 제시했다. 사인의 심각성을 짐작한 실행위원회는 총독부 학무국과 총독에도 서신을 보내어 1936년 6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와 조선 장로교총회를 통해서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남 당국은 정해진 기한 내 답변하라고 명령했다.<sup>34)</sup>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실행위원회와 일부 선교사들이 동년 12월 9일,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를 방문했다. 와타나베는 “학교 교육과 종교는 구분”되어야 하며 신사참배는 “제국의 정신적 기초”라고 주장할 뿐이었다.<sup>35)</sup> 실행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며칠 동안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몇몇 선교사들 및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 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조선인 평양노회도 12월 13일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sup>36)</sup>

30) 『동아일보』 1935년 11월 24일 자, 승실, 승의여학교, 의명학교(제 7일 안식교회) 교장들로 의명학교는 후일 총독부의 강제 정책에 굴복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90면.  
 31) 그가 1932년 3월부터 1936년 4월까지 대만총독부 문교국장을 역임할 때 대만에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가 본격화되었다. 駒込 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235면; 그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灣總督府と帝國日本』, 東京: 三元社, 459면의 대만총독부관료 표 참조.  
 32) 스누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00년 복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1903년부터 1936년 초 조선에서 추방될 때까지 줄곧 승의여학교의 교장으로 일했다. 스누크에 대해서는 승의여자대학교, 2003 『崇義 100年史 1903-2003』, 學校法人 崇義學園, 88-89면.  
 33) 이에 대해 한석희, 1991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김승태 역음) 참조.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85-301면 참조.  
 34) Holdcroft to Ugaki (1935년 11월 25일), Yasutake to Holdcroft(1935년 12월 2일). 김승태 편, 1996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3-196면.  
 35) 방문선교사들은 실행위원회 홀드크로프트, 로우즈, 승실교장 맥쿤, 그리고 남장교 측 선교사 다니엘 커밍(Daniel J. Cumming, 목포, 광주 등에서 활동)과 윌리엄 린턴(William A. Linton, 전주에서 활동)이었다. 『京城日報』 1935년 12월 9일 자,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4일, (395.1163/22), 『신사참배 자료 I』, p. 129에 첨부. 이 기사는 위의 5인이 당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신사참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다.  
 36) 『동아일보』는 이것이 종교집회를 금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는 애국적 행위이므로 만약 노회가 이 문제를 논한다면 집회는 “사회적 집회”가 된다고 맞섰다. 『神社參拜問題 深

결국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은 12월 13일 맥쿤을 통해 그대로 평남당국에 제출되었다. 신사참배에는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신사참배는 “일본제국 헌법이 허용한 종교자유”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 선교부, 해외선교부, 조선장로회 총회 등을 거쳐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sup>37)</sup> 다만 “애국적 행위를 다른 방식” 또는 “개인 또는 교장 자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sup>38)</sup> 당시 총독부는 실행위원회가 맥쿤을 통해 제출한 12월 13일자 글을 동월 19일자로 반송했으므로 실행위원회 측은 당국의 온건책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총독부로서도 12월 20일자의 최종시한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sup>39)</sup> 하지만 이미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적 흐름 속에서 신사참배강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sup>40)</sup> 결국 실행위원회는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보았다. 맥쿤은 해외선교부에 타협이 안되면 선교부는 북장로교계 학교들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sup>41)</sup>

총독부 학무국과 실행위원회 측은 1935년 12월 30일에 다시 만났다. 당국은 신사참배의 국가 의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와타나베 학무국장 취임 후 4개의 북장로교 운영학교가 지정학교로 인가받았으므로 총독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sup>42)</sup> 총독부의 입장을 확인한 맥쿤은 회담 직후 총독부와 조선선교부가 결국 충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sup>43)</sup> 다음 날 총독부 학무국장은 맥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본부 학무국장은 학교 교육 및 종교에 관한 우리 국제(國制)의 큰 틀(梗概) 및 본부의 방침을 분명히 하여 선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일부 인사의 반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의 당면 책임자인 평양 숭실학교 교장 윤산은씨는 그 책무에 비추어 당국의 의도를 양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국은 윤산은씨가 끝까지 학교장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도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케 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필요한

刻化; 「老會側 態度強硬」, 『동아일보』 12월 7일; 8일자. 12월 13일 200명 이상 되는 경찰과 헌병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다. 「五十餘老會員이 會集해 默禱코 散會」李承吉氏談, 『동아일보』 12월 14일, Mc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70-71.

37)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esbyterian Mission, Seoul” (December 9-13, 1935), 『신사참배자료 II』, pp. 37-38; 김승태 편, 『종교정책사 자료집』, 196-197면.

38) McCune to Yasutake (평남 도지사) (1935년 12월 13일), 『신사참배자료 II』, p. 39. 번역은 김승태, 앞의 책, 198면. 동일한 취지의 글을 실행위원회(홀드크로프트)는 학무국장에게도 보냈다. “Holdcroft to Watanabe”, 『신사참배자료 II』, pp. 40-42; 김승태 편, 『종교정책사 자료집』, 199-202면.

39) Langdon to Joseph C. Grew, 1935년 12월 20일, (395.1163/23), 『신사참배자료 I』, pp. 135-136. 서울의 미 영사 랭던은 총독부가, 선교사들과 가능한 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40)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명령에 불복 시, 당국은 학교폐쇄라는 강경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參拜拒否問題擴大 美本部에 總會召集要請」, 『기독신보』 1935년 12월 4일자.

41) McCune to Cleland B. McAfee, 1935년 12월 2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45-49.

42) “Notes on Conference of Dec. 30th, 1935”, 『신사참배자료 II』, pp. 51-52.

43) Mc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70-71.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확히 해둡니다.(강조: 필자)<sup>44)</sup>

1936년 1월 14일에 평남 당국은 맥쿤과 학교 '설립자'인 사무엘 모펫(Samuel S. Moffett)을 평남도청으로 불러 시안의 중대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동월 18일까지 최종입장을 제출토록 했다. 평양 삼승학교 재단은 1월 17일, 맥쿤과 스누크의 교장사임을 거부했다.<sup>45)</sup> 이 때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평양신학교 교수 박형룡과 산정현 교회 목사 주기철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맥쿤과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맥쿤은 1월 18일 모펫과 함께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음과 승실 이사회 측이 자신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설명했다.<sup>46)</sup> 맥쿤은 신사참배의 종교성과 기독교와의 충돌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여전히 "일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기대"한다고 했다.<sup>47)</sup>

평남 당국은 회담 당일인 1월 18일에 맥쿤을 승실학교 교장 직에서 해임했고 이틀 후 조선총독부가 그를 승실전문학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sup>48)</sup> 평남 당국은 승의여학교의 스누크도 2월 22일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sup>49)</sup> 당국으로부터 해임통고를 받은 실행위원회는 학교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수립을 해달라고 해외선교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총독부 학무국의 기독교계 학교의 직접 접수설이 선교사들을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실행위원회는 기독교계 학교들의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한 예로 선천의 신성학교가 독립재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sup>50)</sup>

표 2 1936년~1938년 초 평양부내 중등학교 일람표

학교명	종별(種別)및 주체	설립연도	연한 및 수용학생	비고
평양사범학교	관립	1922년	본과 4년 강습1년/ 조선인·일본인 공학	

44)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on Dec. 31, 1935", 『신사참배자료 II』, p. 73.

45)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395.1163/25), 『신사참배자료 I』, p. 148.

46)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편지, 『신사참배자료 II』, pp. 74-75; 『신사참배자료 I』 pp. 156-157과 210-211.

47) 일본 측 주장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0면 참조.

48) 승실대학교, 1997 『승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 편』, 494면; 「當局과 最後會談에 尹校長參拜拒絶」, 『기독교신보』 1936년 1월 22일자. 당시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는 총독부 학무국이 담당했다.

49) 스누크의 학교운영과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崇義 100年史』, 103-104·204-209쪽.

50) 이는 독립재단이 선교회나 교회재단보다 총독부 학무국의 압력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Holdcroft to McAfee, 1936년 1월 24일, 『신사참배자료 II』, p. 82.

평양제일중학	공립(道費)	1915년	5년/ 일본인	
평양제이중학	공립(道費)	1899년	5년/ 조선인	구한국 관립고등보통학교가 전신
평양상업학교	공립(道費)		갑종5년/ 조일 공학	
평양농업학교	공립(道費)	1910년	갑종5년/ 조선인	
승인상업학교	사립(한국기독교)	1923년	갑종5년/ 조선인	조만식, 오윤선 운영
승실학교	사립(장로교)		5년/ 조선인	평양제3중학교가 됨
승의여학교	사립(장로교)		5년/ 조선인	평양고등여학교에 흡수
광성고등보통학교	사립(감리교)		5년/조선인	경창중학교가 됨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사립(감리교)		5년/ 조선인	남산고등여학교가 됨
서문고등여학교	공립(道費)	1914년	5년/ 조선인	
평양고등여학교	공립(道費)	1913년	5년/ 일본인	
화정여학교	사립(일본불교)	1920년	5년/ 일본인	
평양종로상업전문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종로소학교부설
평양상업실천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일본인	일본인소학교부설
평양명륜실과여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평양공업실습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 참조: 고당전·평양지간행회, 1964 『평양지』, 평남민보사, 30면에 기초해서 재구성.

### 3.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중등학교 측의 대응

서울지역의 선교사, 특히 교육계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가 해외선교부에 보낸 편지는 연희전문학교의 대학위원회(College Council)내에 파견된 각 교과 선교부 교직원들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입장을 전해준다. 학감 유억겸, 문과 백낙준, 수학물리과 이춘호, 상과 이순탁 등 각 과 과장들은 신사참배에 찬성했다. 감리교파 대표 아더 베커(Arthur L. Becker, 白雅德 1879-1978)<sup>51)</sup>와 남감리교의 제랄드 스페이델(Gerald C. Speidel)도 찬성했다. 다만 연희전문 의 성경과목을 담당한 복장로교 측의 로스코 코엔(Roscoe C. Coen)은 반대했다.<sup>52)</sup> 언더우드는 복장로교 선교부가 교육사업에서 철수

51) 베커는 연희전문에서 물리학 및 수학을 가르쳤고 해방 후 부산대학교 초대총장으로 일했다. 그의 딸 Evelyn Becker McCune(1907-현재)는 맥큐 선교사의 아들인 George M. McCune(1908-1948)과 결혼했다.

할 것을 우려하면서 해외선교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52)</sup> 그는 기독교계 학교가 폐쇄된다면 조선인들이 “물질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교”에서 교육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이화여전과 YMCA의 이사장 윤치호,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캐나다 장로회 소속 함흥 영생학교의 김관식, 경신학교의 에드윈 쿤스(Edwin Koons), 정신여학교의 마르고 루이스(Margo L. Lewis), 오공선, 에미슨, 호주장로교의 찰스 매클라렌(Charles I. McLaren), 영국 성공회, 제 7안식교, 로마카톨릭 등이 취하는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sup>54)</sup> 그러므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복장로교 내에서는 다수이지만 전체 선교부에서는 “소수파”라고 보았다.<sup>55)</sup> 이는 해외선교부가 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대체로 언더우드와 그의 지적으로 기호지역의 교육관련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북 지역의 교육관련 선교사들 중에도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들이 있었다. 감리교는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통첩을 받고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sup>56)</sup>

한편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가능성을 전해들은 삼승학교의 교직원과 동문회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국이 숭실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못할 것을 암시한 데 있었다.<sup>57)</sup> 1936년 2월 18일 숭실전문 교수회는 세 가지 원칙을 학교경영자 측에 요구했다. 첫째, 교수회는 숭실전문학교와 운명을 같이 할 것, 둘째, 학교를 연구히 존속시킬 것, 셋째, 경영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권을 조선인 측에 넘길 것 등이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숭실전문학교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학교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숭실학교 교원과 학생들도 유사한 결의를 채택했다.<sup>58)</sup>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숭실재단 이사회는 1936년 2월 26일에 각 학교의 교장 후임자를 선정할 것을 학무국에 통고한 후 동년 3월 4일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에 엘리

52) 위의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p. 5.

53) 언더우드의 해외선교부를 통한 항의는 평양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15-151면 참조.

54) 위의 “Underwood to McAfee”, pp. 5-6. 호주 장로교의 매클라렌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 파악한 듯하다. 매클라렌의 입장은 정병준, 2007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07-310면. 그러나 호주장로교 내에 초기에 입장정리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같은 책, 310-312면.

55) 위의 “Underwood to McAfee”, p. 6.

56)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 『감리회보』 1936년 4월 10일(유동식, 1994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I, 1884-1992』, kmc, 642면에서 재인용). 감리교 교단차원의 대응은 같은 책, 641-645쪽 참조.

57) 2월 14-15일 숭실재단 설립자 모팻은 평남 학무국장에게 신입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 것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 (395.1163/28), pp. 1-2, 『신사참배자료 I』, pp. 161-162.

58) 「崇專, 崇中經營을 朝鮮人에게 讓渡要求」 『기독신보』 1936년 2월 26일자.

모우리(Elis M. Mowry, 牟義理 1880-1970), 부교장에 농과과장인 이훈구를 임명했고 다음날 숭실중학교 명예교장에 모우리, 교장에 정두현을 임명했다.<sup>59)</sup> 숭의여학교도 3월 12일에 교장 사무취급자로 김승섭을 선임했다.<sup>60)</sup>

해외선교부는 미국에서 직접 조선에 사람을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필리핀 주재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dgers)와 중국 산둥[山東] 주재 폴 애보트(Paul R. Abbott)를 조사위원단(commission)으로 임명, 1936년 중순 급히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먼저 일본에 들러 일본 거주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후자는 대체로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설명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총독 우기키 가즈시게를 방문해서 당국의 '신도 비종교론' 입장을 청취했다. 이들은 평양을 방문한 후 서울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6월 25일-7월 2일)에 참여했다.<sup>61)</sup>

두 명의 위원단은 총독부와 접촉하면서 총독부 관료들이 군부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외사과와 학무국은 다소 유화적이지만 경찰과 군부는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sup>62)</sup> 군부의 압력으로 인해 총독부 정책 상 조선 내 모든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강요는 확고하다고 보았으므로 그들은 조선 내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국의 간섭으로 소수의 조선인 지도자들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조선인 지도자들이 "학교보다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아울러 조선인들이 기독교계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sup>63)</sup> 당시 조사위원단이 참여한 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기 전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 문제는 토론할 수 없다는 경무국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고 결국 서명했다. 단 이 문제를 사적으로 토론해도 좋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sup>64)</sup>

선교부 연례회의는 1936년 7월 1일,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철폐'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해외선교부에 보냈다. 교육철폐 안의 내용은 우선 교육사업으로부터 철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선교부가 총독부 측과 "간밀히 협조할 것"과 실행위원회에 교육철폐의 "모든 시간과 방법"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실행위원회의 전권을 전제로 (1) 실행위원회와 각 선교지부가 협의할 것, (2) 실행위원회가 선교부에 그 결정을 보고하되, 각 선교지부가 반대의견을 15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되며, 만약 선교지부에서 반대가 있다면 연례회의 또는 실행

59)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숭실 편』, 494면; 『동아일보』 1936년 3월 7일자.

60) 『숭의 100년사』 211면; 『기독교신보』 1936년 2월 26일자.

61) 이들은 1936년 8월에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이하 *First Commission Report*)라는 보고서를 해외선교부에 제출했다. 『신사참배자료 II』, pp. 141-148.

62) *First Commission Report*, p. 4.

63) *Ibid.*, pp. 5-6.

64) *Ibid.*, pp. 2-3. 미국 영사는 당국이 일본 극우파들의 압력 하에 있다고 보았다.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395.1163/39), p. 5, 『신사참배자료 I』, p. 258.

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투표로 결정할 것, (3) 해외선교부에 보고해야 할 내용은 선교부 지침서(Manual)에 따를 것 등이 골자였다.<sup>65)</sup> 이 결의안은 69대 16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맞서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선교부 내 “자유주의적 소수파”는 각 선교지부의 교육 위원회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주자는 안건을 냈지만 이는 68대 19로 부결되었다.<sup>66)</sup> 소수파들은 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철수를 받아들여 중등학교에만 국한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가 불가하다면 학교의 설립목적은 “가장 유사하게 (most nearly) 유지할 수 있는 단체”에 학교를 넘기자고 주장했다.<sup>67)</sup> 소수파의 의도는 각 선교지부가 교육기관의 경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적어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철수라도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조선선교부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은 교육철수 안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된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철수가 결정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졸업 전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소수파는 당연히 참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장로교 측의 입장을 들면서 실행위원회는 철수기간에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면 교육철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sup>68)</sup> 둘째, 신입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졸업을 위해 교사진을 그대로 둘 때 생기는 재정부족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만약 폐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미국의 재정지원자들이 지원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였다.<sup>69)</sup> 이는 학교철수 결정 이후 철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해외선교부의 조사위원단은 교육선교사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지만<sup>70)</sup> 조선선교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sup>71)</sup>

이에 대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36년 9월 21일 자로 미국 남장로교 및 남북 감리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 하에, 조선선교부와 조사위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sup>72)</sup> 특히 해외선교부는 위원단의 보고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장로교의 자산이 자

65)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6일 (395.1163/38)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자료 I』, pp. 242-243.

66) *First Commission Report*, p. 6, 『신사참배자료 II』, p. 146. 위의 Edson to Grew, p. 7.

67) 소수파들이 제안한 정책전문은 앞의 Edson to Grew, 1936년 7월 16일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자료 I』, p. 260.

68) 앞의 Edson to Grew, 1936년 7월 6일, p. 5.

69) *Ibid.* 이미 맥클은 미국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대해서 재정지원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지원을 철회시키고 있었다.

70) *First Commission Report*, p. 6.

71) *Ibid.*, pp. 7-8.

72) 해외선교부의 반응은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36”(이하 Board Action I), 『신사참배자료 II』, pp. 149-151.

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선선교부에 지시했다. 즉 조선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외선교부의 자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자산을 “대여(loan), 임대(lease), 증여(grant)”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sup>73)</sup> 해외선교부는 “가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선교부가 할 것이지만 만약 선교부가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가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정도로 이 시점에서 조선선교부의 강경한 입장을 존중했다.<sup>74)</sup>

#### 4. 학교 폐쇄와 조선인들 내의 분열

평양 북장로교 선교지부와 조선인 평양노회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상당수 조선인들은 평양의 유서 깊은 학교들의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각도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1936년 12월 10일부터 해를 넘겨가면서 조선인 이사들은 학교 인수자 설정 문제를 두고 선교사들과 논의를 지속했다. 조선인 이사들은 학교를 폐교하지 말도록 선교사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모우리와 같은 교육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sup>75)</sup>

평양의 유지들은 “승전·승중·승의 3교 후계추진회”를 결성, 학교운영진과 협의한 후, 학교의 이사진 중 고한규, 정두현, 김동원을 ‘인계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일임했다.<sup>76)</sup> 평양의 유지인 조만식, 오윤선 등도 인계위원들과 함께 전국의 재력가들과 접촉했다. 그 결과 승의여학교 측은 20만 여원의 자산을 소유한 재단법인 백선행기념관측에 경영을 의뢰했고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는 다른 재단을 물색하기로 했다.<sup>77)</sup> 선교부 실행위원회도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 1937년 1월 초, 해외선교부에 몇 개의 제안을 보냈다. 그것은 조선인들에게 인계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세 가지 안이었는데 첫째, 모든 시설을 인계, 둘째, 송실전문학교의 본관, 과학관, 운동장 등(1,500평)을 제외하고 인계, 셋째는 평안남도 대동군소재의 농장(33만평)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인계하는 안이었다.<sup>78)</sup>

73) “Board Action I,” p. 2.

74) Ibid., pp. 2-3. 이 결정문에서, 가을에 로스스티븐슨 목사(Rev. J. Ross Stevenson)가 조선을 방문할 것이므로 그가 선교사, 한국지도자들과 협의 후 해외선교부에 중요한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슨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근본주의자’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과 신학 논쟁 후에도 프린스턴에 남았다. Bradley J. Longfield, 1991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and Moderates*,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6-170.

75) 『매일신보』 1936년 12월 12일 (『송실대학교 100년사』, 498면에서 재인용); 『崇專崇中崇義校の廢校に猛烈反對』 『朝鮮新聞』 1936년 12월 12일 자([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np\\_sc\\_1936\\_12\\_12\\_0220](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np_sc_1936_12_12_0220)).

76) 『崇實後繼促進會解體 報告書發表』 『기독신보』 1937년 2월 24일자.

77) 『四十年歷史를 갖인 崇專, 崇中, 崇義의 通悲한 最後』 『기독신보』 1937년 2월 10일자.

인계위원회 김동원의 노력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던 서북인 방응모가 합동경영을 전제로 하는 인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숭실전문학교 측은 큰 기대를 걸었다.<sup>79)</sup> 그러나 처음부터 숭실학교가 분리경영을 주장해서 초기의 인수안은 암초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숭실전문학교 학생들은 1937년 2월 2일, 대강당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숭실의 합동경영안을 강력히 제기했다.<sup>80)</sup> 숭실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반해 1937년 2월 5일 “학교 내용의 충실과 자유로운 향상발전”을 위하여 숭실 전문과 분리, 단독경영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선장로회 총회장 이승길을 중심으로 한 현직목사들과 숭실학교 교장 정두현 등은 단독경영을 지지했다. 이에 김동원은 삼교 합동경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분리와 합동경영의 주장은 숭실전문학교 혹은 숭실학교의 존속여부와 관계되어 있었다.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측은 독지가가 나타날 지를 우려하면서 단독경영이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았다.<sup>81)</sup>

내분으로 말미암아 심송학교 인수운동은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위원회(솔타우)는 평양지역 선교지부회의를 긴급히 개최, 1936년 7월 1일에 결정했던 대로 삼교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않기로 한 안을 확인했다. 실행위원회는 학교의 분리경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평안남도 당국에 조속히 폐교수속을 단행하기로 했다.<sup>82)</sup> 이 소식은 학생, 학부모, 일반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서 당시 학교가 곧 폐교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숭실전문학교 교장 모우리는 학교폐교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하면서 신입생 모집이 늦어지더라도 학생모집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sup>83)</sup> 모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파들인 평양 선교지부 다수와 선교사들을 “과도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송의여학교 교장 올리벳 스왈렌(Olivette R. Swallen, 蘇安燁)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경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84)</sup>

78) 「崇專, 崇中, 崇義 三校 引繼具體案을 宣敎部에 請訓」 『기독신보』 1937년 1월 13일자.

79) ‘인계위원회’와 방응모의 관계는 Hoon K. Lee (이훈구)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신사참배자료 II』, p. 173.

80) 송전 측의 입장은 『매일신보』 1937년 2월 4일자(『숭실대학교 100년사』, 498면에서 재인용).

81) 숭실중학 측의 입장은 『崇中職員團 聲明書發表』, 『기독신보』 1937년 2월 17일 참조. 분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숭실대학교 100년사』, 499-501면 참조. 숭실전문학교는 맥쿤 교장시절 미국인 독지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며 급성장했다. 맥쿤의 사임으로 독지가 2명의 재정기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숭실중학 측은 통합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앞의 『기독신보』 1937년 2월 24일자 기사.

82) 앞의 『기독신보』 1937년 2월 10일자 같은 기사. 선교사들은 숭실학교의 분리문제가 학교폐쇄 결정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솔타우를 중심으로 하는 실행위원회 측은 애초부터 학교폐쇄, 철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조선인들의 강력한 압력으로 해외선교부에 최종 결정을 미루었을 뿐이다. 앞의 『기독신보』 1937년 2월 24일 자 기사는 실행위원회 측이 합동경영 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일신보』 1937년 2월 13일 자 기사는 선교사 측이 합동이나 분리를 상관치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기독신보』 측의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3) 「崇專校長 悲壯한 訓話-廢校說을 絶對否認」 『기독신보』 1937년 2월 17일자.

84)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Mission School-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5월 7일 (395.1163/52), 첨부된 Memorandum by Vice Consul Ralph Cory, (1937년 5월 6일), 『신사참배자료 I』.

이후 평양 유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인보(韓仁輔)가 70만원을 투자하여 송실전문과 송의 여학교를 경영하고, 이춘섭(李春燮)이 30만원을 투자해서 송실중학을 경영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sup>85)</sup> 관련학교 측과 후계촉진회의 80여 명의 평양유지들은 이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리하여 1937년 3월 3일 밤 선교사 랄프 라이너(Ralph O. Reiner, 羅道來)의 집에서 후계경영청원안이 조인되었다. 청원서는 송실학교의 분리 경영, “인계 후의 학교 경영은 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와 동일히 한다”는 것과 소속 학교들의 자세한 재산목록을 담고 있었다. 이 청원서는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선교부에 보내졌다.<sup>86)</sup>

하지만 실행위원회와 선교부 강경파들은 평양지역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의 학교인수에 대한 열망에 그다지 동정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인보의 도덕성(축첩과 카톨릭 신자)을 의심했다.<sup>87)</sup> 다만 김동원, 조만식, 오윤선 등 평양지역의 유지들도 한인보의 도덕성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세를 따라 그의 학교인수를 지지했다. 라이너는 후일 자신은 조선인들의 학교유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sup>88)</sup> 1937년 2월 24일에 호남지역 남장로교 선교부의 학교철수인인 ‘폴턴 성명서’가 발표되자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 측이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랐다.<sup>89)</sup> 그러나 선교사들은 평양과 서울 등지의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선교부는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1937년 3월, 두 명의 위원, 찰스 레버(Charles T. Leber)와 르로이 도즈(J. LeRoy. Dodds)를 2차 조사위원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3월 9

pp. 329-331.

85) 「北長老派宣教會 經營各學校問題」, 『기독신보』 1937년 3월 10일. 이훈구는 송실전문학교의 양주동이 주동이 되어 한인보를 끌어들이고 모우리가 이를 강력히 지원했다고 했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pp. 1-2.

86) 청원서 전문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501-505면; 「崇專, 崇中, 崇義三校 後繼請訓調印完了」, 『기독신보』 1937년 3월 17일자. 해외선교부에 대한 학교운영진의 간청서는 “Peti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 an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 S. A.” 1937년 3월 5일(송실전문학교 교직원 일동), 3월 9일(송의여학교 교직원 일동), 『신사참배자료 II』, pp. 168-172. 후계청원서가 조인된 후인 3월 6일, 학교 측은 한인보, 이춘섭을 위해 찬화회(讚賀會)를 개최했다.

87) 이훈구는 양주동과 평남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이너와 교섭할 때도 일제 측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훈구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제 당국이 이 문제에 모종의 개입을 하고 있음과 ‘인계위원회’ 측 인사들 내에서도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인보의 재산액은 맥쿤과 이훈구의 지인인 변호사 노진설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pp. 1-3.

88) 라이너는 해외선교부가 평양유지들의 인수안을 수정한 후 그것을 받아들여줄 것을 바랐다. 그는 송실학교 이외에는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는 고등교육의 비효율성과 한인보의 도덕성을 각각 들어 폐쇄되기를 희망했다. “Letter dated August 1, 1937 from Ralph O. Reiner”, 김홍수 엮음, 2003 『WCC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하 『WCC 신사참배자료』), 395-398면.

89) Holder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RG 140-12-21, PCUSA), 『신사참배자료 II』, pp. 176-177.



일에서 22일까지 머물며 강계를 제외한 모든 선교지부를 방문하면서 교육철수 문제를 조사했다.<sup>90)</sup> 이들이 3월 13일 평양을 방문해서 솔타우의 안내로 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승전의 모우리, 박치우, 승중의 정두현, 송기업, 승의의 오문화, 한인보 측 대표 양주동, 그리고 각 학교의 교수회, 교직원, 교우회 등이 2차 위원단에게 세 학교의 인계청원안을 속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91)</sup> 두 위원은 황해도 재령에서 1937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인계안을 토론했다.<sup>92)</sup> 실행위원회는 동년 3월 3일에 서명된 청원서를 해외선교부에 보내지는 안을 통과시켰다. 조선 언론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이 뉴욕에 도착한다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후결정”으로 보도되었다. 관련 학교 측은 이에 환호작약했다.<sup>93)</sup>

조선사회 내의 긍정적 반응과는 달리 2차 조사위원단은 선교부 내와 한국인들 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태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다.<sup>94)</sup> 이들은 조선인들의 인수안과는 다른 입장을 해외선교부에 개진했다. 두 위원도 신사의식에는 “종교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들이 “반일활동과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사참배를 이용해서 “제국정신(empire spirit)”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위원은 대부분의 조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학교폐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sup>95)</sup> 이들은 당시 기독교계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고 있었다.

두 위원의 기록은 자신들이 참석한 실행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준다. 실행위원회는 주로 신사 및 교육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평양의 학교철수와 관련해서 네 가지의 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고 부동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안(선교부의 초기입장).
2.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완전 철수 후 조선인들에게 학교와 부지를 넘기는 안(한국인들의 인수요구안).
3.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 후,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를 위해 보유하되, 정부가 허락하는 조선인들에게 학교 교직원(선교사는 제외)과 학생들을 인계하는 안.
4. 3안과 대체로 같지만 선교부가 보유한 부동산 중 조선인들이 기부한 두 곳과 일본당국이 기

90) *Second Commission Report*, p. 1-2. 이들은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타카오 진조오(高尾基造)를 두 차례 방문해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당국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91) 『米國北長老派宣教師總務』 다드, 레버 兩氏來訪』과 『米國北長老派總務』에게 崇實三校引繼 早速實現을 要望』 『기독신보』 1937년 3월 24일자.

92) 『載寧서 레버, 다드 兩氏와 같이 宣教師實行委員會開催』 『기독신보』 1937년 3월 24일자.

93) 『崇實三校後繼問題를 宣教師會實行委員會에서 正式通過』와 『崇實三校後繼問題 不遠間最終的 落着』 『기독신보』 1937년 3월 31일자.

94) *Second Commission Report*, p. 4.

95) 기독교계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는 Ibid., pp. 4-8.

부한 한 곳의 토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안.<sup>96)</sup>

평양 선교지부 인사들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지만 이내 2, 3, 4안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2안은 평양지역의 일부 선교사들과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열렬한 희망사항이었고 일본 당국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의 한인보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위협” 등으로 보건대 이는 바람직한 안이 아니라고 두 위원은 판단했다. 3, 4안은 상당수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지지하는 안이지만 2안에 묻혀서 실제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sup>97)</sup> 위원단의 보고서 결론은 조선 선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선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되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1937년 6월 24일부터 열리는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된 후 선교부 회원 중 일부가 미국에 건너가서 해외선교부 인사들과 토론을 거친 후 해외선교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sup>98)</sup>

해외선교부가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는 2차 조사위원단의 주장은 사실상 두 번째의 학교인계안을 부결시킬 의도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인계자의 도덕성은 학교의 기독교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위원단의 대안은 제 4안으로, 조선인과 일본 당국에 원래 소유지를 돌려주고 교사와 학생들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sup>99)</sup> 인계안의 핵심이 학교명과 건물임을 생각할 때 이는 한국인들의 인계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측과 2차 위원단의 학교인계안 찬성안은 조선인들과 총독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행위원회와 2차 위원단의 실제 입장을 모르고 있었던 평양지역의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은 해외선교부의 답변이 늦어지자 해외선교부에 거듭 확답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sup>100)</sup> 이 문제는

96) 이상의 네 가지 안은 Ibid., pp. 8-9.

97) *Second Commission Report*, pp. 9-10.

98) Ibid., pp. 10-11. 해외선교부 파견 위원단의 입장은 성명서로 채택되어서 총독부 학무국, 평남 도지사, 평양의 인계후원회, 평양선교지부에 전달되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고 다만 해외선교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같은 문서, pp. 12-13. 실행위원회 측은 당연히 철저한 학교 폐쇄 쪽을 선호했다. Hold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RG 140-12-21, PCUSA), 『신사참배자료 II』, pp. 176-177.

99)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해외선교부가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일본이나 조선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들의 보고서도 조선을 벗어나 중국 상하이에서 1937년 4월 12일에 작성되었다. *Second Commission Report*, pp. 14-15.

100) '3교수계후원회 실행위원회' 측은 자신들의 후계청원서에 해외선교부가 4월 20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자 신입생 모집과 후계청원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평남 도당국과 해외선교부에 5월 초에 다시 발송했다. 이 후원회는 평양주민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실행위원회 측과 신

1937년 4월 1일자에 시작된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였다. 일제 당국과 조선인들은 학교인수가 확실시됨으로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sup>101)</sup> 이에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입생 모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sup>102)</sup>

조선인들의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부 측은 교육철수에 대한 입장표명을 1937년 중순까지도 하지 못했다.<sup>103)</sup> 해외선교부는 1937년 6월 말, 실행위원회에 보낸 답신에서, 외사분과위원회(Foreign Department Committee)에서 다시 심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동년 9월 경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sup>104)</sup> 이러한 해외선교부의 답신에 조선인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해외선교부의 답신이 온 직후인 1937년 6월 24일부터 1주일 간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조선인들은 학교인수안이 통과되도록 다시 선교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에 실행위원장 솔타우는, 평양지역 세 학교의 교육인계문제는 해외선교부의 소관이므로 선교부 연례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sup>105)</sup> 그런데 이 회의에서 대구와 서울의 학교들에 대한 폐교가 결정됨으로 조선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6월 29일의 회의는 1939년부터 대구 계성학교와 신명여자학교에서 철수, 30일 회의는 1939년부터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철수가 결정되었다. 다만 서울의 정신여자학교와 선천의 신성학교, 보성여자학교의 문제는 일단 보류되었다.<sup>106)</sup> 한편 1937년 9월 말,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평양 학교들에 대한 인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교부는 11월 1일 자로 당국에 학교 폐교

입생모집을 위해 교섭했다. 『新入生問題로 受繼後援會 活動』 『기독신보』 1937년 5월 5일자; 『米國宣敎本部和 宣敎師側에 陳情과 懇願書發送』, 같은 신문 1937년 5월 19일자. 이에 실행위원회의 솔타우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後繼問題를 六月 二十日까지 解決』, 같은 신문 1937년 5월 26일자. 그러나 이는 조선인들의 ‘위협’을 해소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外地傳道部委員會 十日頃에 重大會合』, 같은 신문 1937년 6월 9일자.

101) 사실 「복장노회 선교회에 一언을 드리노라」 『기독신보』 1937년 6월 30일 자는 선교사들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었으면서도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선교부의 애매한 태도를 비난했다.

102) 선교사들은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거부했다. 『平南當局에서 新入生募集을 懲罰』 『기독신보』 1937년 4월 7일 자. 실행위원회 측은 처음부터 학교인계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3) McAfee to George T. Scott, 1937년 4월 12일, 『신사참배자료 II』, pp. 164-165.

104) 『崇專, 崇實, 崇義三校後繼問題의 米國宣敎會本部回答到着』, 『기독신보』 1937년 7월 7일자. 해외선교부 결정문은 “Board Action June 14, 1937: Chosen School situation”, 『WCC 신사참배자료』, p. 358.

105) 『平壤三校後繼請願問題로 蘇悅道 宣敎師重大聲明』, 『기독신보』 1937년 6월 30일자.

106) 『敬新, 信聖도 經營引退를 決議』, 『기독신보』 1937년 6월 30일자. 신성학교에는 1937년 가을부터 신사참배가 강요되었기에 실행위원회 측은 즉시 학교폐쇄를 결정했다. Holdcroft & Soltau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8년 3월 28일(RG 140-12-26), p. 2, 『신사참배자료 II』, p. 292.

원을 제출했다.<sup>107)</sup>

조선총독부는 평양지역 학교들에 대한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안을 허가했다. 다만 총독부는 평양 선교지부가 2년 동안 두 개의 건물 중 한 개 반을 대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폐쇄에 동의했다. 이는 평안남도 당국이 전문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거나 인가한다면 새로운 교사(校舍)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에 이 문제를 일임했으므로 실행위원회는 당시 평양지역의 조선인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평남 당국의 안을 수용했다.<sup>108)</sup>

결국 송실관련 학교들은 모두 폐교하게 되었다. 그러자 광산가 이종만이 폐교 위기에 몰린 송실전문학교를 인수할 것을 총독부 학무국에 요청했다. 이종만은 1938년 6월 1일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어서 7월 1일자로 대동공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sup>109)</sup> 송실학교는 평양 제3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송의여학교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의 일부로 흡수됨으로 총독부의 교육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평양의 유서 깊은 삼숭(三崇)학교는 1938년 3월에 기독교계 학교로서의 역사를 매듭지었다.<sup>110)</sup> 결국 1937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 일본으로서는 후방인 서북지역의 조선인들을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당국의 통제권 내로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수용했던 것이다.

1938년 2월 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 95호)을 반포해서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 3차 교육령(동년 3월)을 발표해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학교의 명칭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면서 기존의 일본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이원적인 교육을 통합했다.<sup>111)</sup> 두 가지의 정책은 사실상 밀접하게 연

107) 선교부는 9월 말에 해외선교부에서 통보를 받고 평안남도 도지사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決定된 미션學校의 運命』(『동아일보』 1937년 10월 1일)과 『崇實專門의 廢校願 遂 昨日 府 提出』(같은 신문 동년 11월 2일)

108) 해외선교부는 건물대여 조건의 폐쇄 안에 대해서 실행위원회로부터 1938년 2월 1일 자료 전보를 받았고 2월 21일에서야 결정을 내렸다. 위의 “Board Actions Regarding Withdrawal from General Education in Chosen”, pp. 7-8; 『平壤崇專의 校舍 大同工專에 貸與』, 『동아일보』 1938년 2월 24일자. 학교부지 대여문제로 선교부와 총독부, 도당국과의 협의와 타협에 대해서는 『송실대학교 100년사』, 517-520면 참조.

109) 『大同工業五月開校 今年鑛山科單 設置』; 『當分間 鑛山科單』, 『동아일보』 1938년 6월 1일 ; 3일자. 이종구는 이종만과 접촉을 성사시켰다. Soltau to Leber, 1938년 1월 6일 (RG 140-12-27), 『신사참배자료 II』, pp. 280-281.

110) 송실학교는 평양 제 3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가 1938년 제 3차 교육령 반포 후 학제 개편에 따라 평양 제 3중학교로 개명되었다. 『崇中後身 平壤第三中學 設立認可』, 『동아일보』 1938년 4월 5일자. 평남도의 회에서 송의여학교를 제 2 여자고보로 만드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崇義女學校를 第二女高普로 하라』 貧困兒童의 授業料 免除도 強調 平南道會 第五日』, 『동아일보』 1938년 3월 18일; 『崇義 100年史』, 225면.

111)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 95호)과 「제 3차 교육령」(3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 1989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64-174면 참조.

결된 것으로 1938년 총독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다.<sup>112)</sup> 일본은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서라도 조선인들의 교육육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의 조선인들과 선교사들 간의 일체의 분리전략은 성공했다.<sup>113)</sup>

## 5. 맺음말-해방 후의 유산의 문제

해방 후 평양을 포함한 38선 이북은 소련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숭실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와 선교사 타운은 대체로 소련군과 조선노동당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이는 태평양전쟁기 이 부자들이 일체에 의해 미국의 적산으로 취급되었고 해방 후에는 소련 측에 의해 일체의 적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평양에 일진으로 들어갔던 제 5공군 소속의 하워드 모펏(Howard P. Moffett)은 소련 측이 선교부 재산을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선교부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데 이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점령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up>114)</sup> 모펏은 한국전쟁이 끝나면 식민지시기 진행되었던 선교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현지 지도자들의 부족 때문에 외국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115)</sup> 그러나 전황이 불리해지자 북한에서의 선교활동은 다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북장로교에게는 평양지부의 선교보다는 남한에서의 선교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시기 서북지역 인사들이 대거 남하했다. 이들은 주로 한경직, 윤하영 등 서북지역, 특히 평북

112) 미나미 지로 총독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법령」이 공포된 날 도지사들에게 “이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시책을 달성하고 싶다. 그 하나는 조선인지원병제도의 실시이고 그 두 번째는 교학쇄신(刷新) 및 확충이다”라고 연설했다. 조선총독부, 『施政三十年史』(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803면에서 재인용. 미야다 세츠코는 ‘지원병제도’ 제 3차 교육령, 창씨개명(1940년 2월)이 중일전쟁 개전 직전부터 거의 동시에 조선인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입안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이형량 옮김), 1994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 103-124면.

113)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비난한 홀드크로프트는 결국 일본의 썬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았다. Holdcroft to Hooper, 1939년 10월 13일, 『신사참배자료 II』, pp. 410-413.

114) Howard P. Moffett to John C. Smith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950년 10월 25일 자. 이는 김홍수 역음, 2003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한국전쟁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39-140면에 실려 있다. 모펏은 평양지부를 개척한 사무엘 모펏(Samuel A. Moffett)의 아들로 전쟁 후 대구 동산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115) Ibid., p. 140.

지역 목사들의 지도력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한의 일본인 적산 일부가 이들에게 가게 되었다. 미군정이 신사의 한 종파인 천리교 부지를 피난민이 주축이 된 영락교회에 양도한 것은 그 한 예이다.<sup>116)</sup> 해방 후 기독교계에 대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의 이면에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었다.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는 해방 후 북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 중 상당분량을 영락교회 등 월남교회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sup>117)</sup>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이를 당연한 보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울러 남하한 숭실학교 인사들의 소련 치하의 북한에서의 경험 등은 이들을 해방 후 굳건한 반공 ‘친미세력’으로 주조했던 것이다.<sup>118)</sup> 해방 후 변화된 정국은 식민지기 말 평양의 교육사업 철수를 두고 빚어진 선교사, 조선인, 일본 당국 간의 복합적인 곁항의 경험을 덮어버렸던 것이다.

주제어 : 신사참배, 조선선교부, 북장로교, 조지 맥쿤(윤산은), 벨마 스누크, 숭실전문학교, 숭의학교, 숭실학교, 조만식

투고일(2009. 7. 27), 심사시작일(2009. 7. 31), 심사완료일(2009. 9. 23)

116)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983 『영락교회 35년사』, 46-47·100면.

117) 북장로교의 새로운 자금투자와 한국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247-251면.

118) 베트남전 직후 1970년대 중후반 주한미군 철수반대운동에 영락교회가 앞장 서 있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영락교회 35년사』, 312-314면.

<Abstract>

## Shinto Shrine Issue and Pyeongyang Mission School's Response around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Jong Chol An \*

This article has an aim to study how the Japanese Shinto worship issue in the 1930s produced diverse responses of the Korean community which was related to the Christian schools in Pyeongyang. The previous scholarship has mainly focused on the Japanese Shinto enforcement and Korean resistance to it rather than diverse responses on the part of Koreans and some missionaries. Pyeongyang was known as “Jerusalem in the Orient” sinc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name that showed the strong Christian population and influence. Japanese Shinto enforcement upon Koreans, therefore, brought Korean conservative's resistance, the tension that contained the possible confrontation between Japan and the U. S.

The Chose Mission with the Pyeongyang station as a core member, decided not to succumb to Japanese demands at the expense of Christian schools. This response reflects the conservative presbyterian teaching dating from the beginning of Christian evangelism around Northwestern Korea. Consequently, the Chosen Mission decided to withdraw from secular education in Korea. This policy was not acceptable to Koreans since mission education partook at least thirty percent of the Korean education and Christian school was the only route to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lonial Korea. Consequently, Korean Christians and some missionaries endeavored to inherit mission school from the Chosen Mission, the idea that was in vain. The Christian schools were shut down and most students were transferred to Japanese public schools.

The reason why this issue was framed as no tension between Koreans and missionaries is that Korean Christians including northwesterners in post-1945 period had to cooperate with returning missionaries in education, medical works, and

---

\* H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Inha University

evangel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Koreanization movemen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shows the nationalistic zeal on the part of Koreans regardless of whether Japanese or American missionaries supported Koreans.

Key Words : Shinto Shrine Worship, Chosen Mission,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George S. McCune, Velma L. Snook, Union Christian College, Soongsil School, Soongui School, Cho Man-sic